금주의 법구-〈견의경〉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마음 올바르면 복은 스스로 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2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30호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여법한 사면으로 대화합 열겠다"

조계종, 3일 신년하례서 멸빈자 대사면 예고 주목


조계종은 1월 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멸빈자 사면을 예고했다.

종헌 · 종법상 구제방안 없어
'종단화합특별법' 제정 논의
이르면 3월 중앙종회 발의
종헌과의 상충 해결법 찾나

종도 공의 · 적법한 절차 필요
"대중 정서 이해가 우선돼야"

조계종 신년하례가 이례적으로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서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멸빈자에 대한 대사면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불기2561(2017)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전통불교의 식인 통알을 하며 삼보전에 3배를 올렸다. 신년하례에는 원로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각 교구본사주지 · 중앙종회의원 ·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은 신년교시를 통해 종단이 올해 멸빈자들에 대한 사면에 나서 줄 것을 우회적으로 제안했다.

스님은 "우리 승가에 함께 수행했던 소외된 도반들도 다 같은 일불제자(一佛弟子)다. 부처님 재세 시에도 승가의 여법한 화합을 위해 이해와 용서하는 불은(佛恩)을 베푸셨다. 이제는 애민섭수(哀愍攝受)해 불교중흥의 대장정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진제 스님은 2015년 6월 멸빈된 서의현 前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공권정지 3년' 판결에도 비슷한 교시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서 "종정예하 가르침을 성심으로 받들겠다. 종헌종법에 입각한 여법한 사면을 통해 대화합의 길을 열고,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대사면 의지를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8월 열린 원로회의서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대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1994년 종단개혁으로 인한 멸빈자 사면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94년 멸빈자 사면 등의 내용을 담은 '종단화합조치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오는 3월 중앙종회 임시회 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헌종법특위 간사 성화 스님은 "아직까지 특위에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면이 이뤄지려면 3월 임시회에 발의해야 한다. 법안 논의에 속도를 더 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앞서 사부대중위원회 94년 멸빈처리분과가 선정한 멸빈대상자는 서의현 · 임원두 · 정보일 · 김무성 · 김종원 · 황진경 등 6명이다. 재산상 비위 등으로 멸빈된 2인과 입적한 1인은 제외됐다.

특히 현행 종헌종법상 멸빈자 구제방안이 없는 만큼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도 세간의 관심사다. 종헌 128조에는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06년, 1998년 종단사태로 멸빈된 스님들이 특별법을 통해 사면복권 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종권을 둘러싼 분규에 의한 정치적 보복 성향이 짙다는 견해와 징계 근거인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효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큰 갈등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1994년 개혁은 한국불교 현대사의 획을 그은 종단개혁이라는 정서가 작용하기 때문에 98년 종단사태와는 종도들이 느끼는 의식에 차이가 크다. 2015년 '서의현 재심파동'은 현재 침잠된 상태일 뿐 논란이 종식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출 · 재가 단체들은 '종도 공의'와 '적법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스님은 "법도 사람을 위해 있듯이 종도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5년 당시 종단이 경솔했던 부분을 되새겨 절차를 잘 지킨다면 사면을 반대하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94년 개혁 활동가들이 모여 조직한 신대승네트워크의 박재현 협업미래센터소장은 "시간을 갖더라도 종단이 성숙하고 대중이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겠다는 공의를 모으는 것이 순서"라면서 "당사자의 참회와 종헌종법을 개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증도가자' 논란, 새해엔 마무리되나

문화재청, 분석 공개… 13일까지 의견 받아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논란이 새해에는 종식될 수 있을까.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구랍 30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중인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의 분석 결과를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문화재청은 "국민들에게 유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견개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그 동안 분석된 증도가자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도가자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를 인출하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현재 금속활자본은 전해지지 않고, 다만 1239년에 이를 목판에 새겨서 찍어낸 복각본(목판에 다시 새겨서 찍어낸 책)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증도가자는 1377년 간행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보다도 최소 138년은 앞서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된다.

증도가자는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이후 진위를 비롯한 찬반 논란이 거듭되다가 2015년 문화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이 구성돼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당초 마련된 지정조사 계획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 분석한 결과를 비롯해 주조 · 조판 실험결과, 취득경위 관계자료와 그간의 경과자료 등이다.

분석 결과는 문화재청 누리집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월 13일까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의견 개진 기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추후 공동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며 "이번 공개검증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신중하게 지정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17 현대불교 '확' 달라집니다


Mandala
45년 '花開一如'… '꽃은 곧 부처님'

섹션 신설로 독자 욕구 충족

본지는 섹션 'Mandala'을 신설해 고정으로 운영합니다. 섹션에는 불교를 통해 세상을 밝히는 사부대중의 이야기를 담은 와이드인터뷰와 수행과 세계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연재와 출판, 문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Fact Check Q&A' 신설

현대는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선취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에 기반한 뉴스는 어느 때보다 올바른 '팩트'가 필요합니다. 월 1회 불교계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합니다.

다양한 연재로 읽을거리 확대

본지는 섹션을 신설하며 문화재, 명상 · 수행, 기행 전문가들의 전문 연재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 제호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 기행'

윤범모 가천대 명예교수가 부다가야에서 토함산까지 여정에서 만난 성보들을 깨달음의 미학으로 해석한 고품격 연재.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사찰불화 명작강의〉 저자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가 불화 속에 담긴 경전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전합니다.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본지 신행일기를 보고 발심, 매일 1080배를 해온 박원자 작가가 만난 108배 수행 행자들의 수행 일화를 풀어냅니다.

김성우의 '念佛覺者列傳'

김성우 수행전문작가가 염불의 역사부터 관련 고승의 일화, 구도과정을 정토적 관점에서 전합니다.

정상교의 '꼿으로 본 세상만사'

〈도쿄대학 불교학과〉 저자 정상교 박사가 자신의 전공인 '중관'으로 바라본 세상을 이야기 합니다.

송마나의 '사유의 숲을 거닐며'

송마나 작가의 글은 사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불교적 사유의 단상과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국토 전체가 순례길이라고 여기며 8년을 답사 중인 고원영 조계종 산악회 부회장이 소개하는 사찰로 가는 길.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간사이 아줌마 나카노 요코가 전하는 일본 간사이 지역 불교와 사찰의 숨겨진 매력들.

박태수의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의 명상학 총론. 직접 체험을 통한 명상 상담사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 〈팔만대장경〉이 펼쳐집니다.

